전법 일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나를 사랑하는 법' 담긴 불교

지난 세 번의 기고에서 저는 불교와 인연을 맺어 온 과거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 있는 현재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쳤고, 닷새 뒤인 12월 8일 저는 홍대선원 스태프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쉬지 않고 정진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활동에 시간을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왜 좋은 직장에 가지 않는가" 등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변의 염려와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불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직장이란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며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 조직의 건강함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성장까지 이뤄야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홍대선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인 가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저는 한국 전통문화, 글로벌 웰니스(Wellness) 흐름, 그리고 사람 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행턴(행자+인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을 스님과 고민했고, 이는 업무 해결 과정과 소통 방법에 대한 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파트장을 맡아 명상·수행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며 게스트들이 JustBe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고민한 결과, '수행 패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대에 쉽게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을 얻고 있으며, 어쩌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까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자신의 성장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불교와 수행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지닌 채로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가, 커뮤니티 활동, 취미 공유를 즐기고, 술 대신 차를 찾는 데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 돌려 주변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라이프스타일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살피는 마음'에 대해 2600년간 고민해 온 철학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깊은 지혜 속에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고 그 자신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인연 맺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평화롭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보로부두르, 공(空)의 자리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다. 한밤중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깜박이는 빌딩 불빛이 외롭게 느껴졌다. 건물이 외로울 리 없겠지만 내 마음이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실존의 현상이다.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그것은 상실과 결핍에서 비롯된 허무가 아니겠는가.

까닭 모를 허전함에 잠겨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던 보로부두르 사원 성지순례 광고가 떠올랐다. 거대한 사원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컴퓨터를 켜고 족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와 사원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티켓을 예매했다.

족자카르타의 새벽하늘은 뿌옇고 탁했다. 택시를 타고 사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안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는 예약한 관람객만이 정해진 시간에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 사원에 올라 참배할 수 있다. 나는 첫 번째 팀에 합류했다.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사원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이 쏟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길 위를 떠돌다 고향에 돌아온 듯 그리움과 안도감이 온몸에 사르르 번졌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우주 전체를 돌로 형상화한 법계(法界)였다. 먼 옛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석조 구조는 세계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수미산이며 우주를 펼쳐 낸 만다라였다. 사원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인간 내면을 향한 수행의 길로 다가왔다.

사원의 맨 아래는 사각 벽으로 닫혀 있었다. 그곳에는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그린 부조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감춰진 탐(貪)·진(瞋)·치(癡)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니 사각 회랑이 4층으로 이어졌다. 벽면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 부처님의 생애와 전생 이야기, 중생의 고통과 보살의 발자취가 한 장 한 장 펼쳐지듯 드러났다.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돌 속에서 설법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사각 층을 벗어나 원형 테라스로 올랐다. 세 겹의 테라스에 반투명한 스투파 72기가 빙 둘러 있었다. 그 속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상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스투파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빛이 스투파 격자 구멍을 뚫고 쏟아져 눈부셨다. 스투파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며 안을 들여다보아도 불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스투파의 작은 구멍에 더 매달렸지만 그 안의 불상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 이 먼 길을 와서 부처님을 뵐 수 없다니….' 낙담한 눈빛으로 정상에 우뚝 선 거대한 스투파를 바라보았다. 그때 "너는 인간이 만든 내 형상을 보려고 이곳에 왔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맨 꼭대기 스투파는 불상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 공(空)의 자리는 돌로 빚은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 외로움과 허무를 비워 내고 내가 부처로 서야 할 자리였다. 〈작가〉

기자칼럼

말 없는 법, 통도사가 건넨 선물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가을, 사람들로 북적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산문 앞은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주차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개산대재와 미디어아트, 장밭뜰 메밀밭, 보경호 수상전까지. 사찰 전체가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했다. 도량이 신도를 위한 신앙의 공간만이 아니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시공(時空)의 설법'으로 확장됐다.

특히 하얀 메밀꽃이 만발한 장밭뜰은 통도사 가을의 상징이 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구상으로 조성된 이 들판은 자연이 스스로 완성한 예술이다.

바람이 불면 메밀꽃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족, 친구와 추억을 만든다. 꾸밈없는 자연이 예술이자 불법(佛法)이 되는 순간이다.

성파 스님의 옻칠 항아리와 회화 200여 점을 호수 위에 띄운 '성파선예 – 자유에로[自由自在]'는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이 그림을 흔들고 빛이 그림을 비추는 순간, 예술은 인간의 손을 떠나 자연의 일부가 됐다. 호수는 거대한 캔버스이자 법당이다.

성파 스님은 전시 개막 인사에서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선사들의 설법은 언제나 말이나 형식을 넘어선다. 달마 대사는 아홉 해 동안 벽을 마주하고 침묵으로 법을 전했고, 임제 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일갈로 제자의 집착을 끊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통도사 도량은 이 같은 선사의 말 없는 법문으로 느껴진다. 도량 곳곳이 말 없는 법을 전하고 문(門) 없는 문을 여는 깨달음의 선물, 그 자체로 다가온다.

바람이 불고 빛이 스치면 메밀밭과 호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 누가 설법을 하는지, 무엇이 법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자연이 설하고, 인간이 듣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파 스님이 세상에 건넨 진짜 선물이 아닐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